#Gemini #통계 p-value #AI 역할 설계

"정답을 말하지 마"

AI에게 금지 지시를 내렸더니, 내가 공부하기 시작했다

설명은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,
며칠 뒤 내 입으로는 설명이 안 됐다.

▼

그래서 Gemini에게 역할을 부여했다

정답을 알려주는 AI가 아니라, 내가 잘 이해하도록 돕는 AI로

BEFORE vs AFTER

역할 설계 없음

"p-value가 뭔지 설명해줘"

▼

완성된 정답 즉시 제공

소요 **1분**

이해 확인 장치 **없음**

한 문장 정리 → **AI가 대신**

"p-value는 ~입니다."

촉진자 역할 설계

"p-value가 뭔지 설명해줘"

▼

일상 속 쉬운 예로 **이해 상황 파악**

소요 **10분**

오개념 발견 → **스스로 수정**

한 문장 정리 → **내가 직접**

"p-value는 ——
확률이며…"

시간은 더 걸렸지만, 이해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

나만의 방식 · 프롬프트 3단 구조

1	맥락	"너는 학습 촉진자야"
2	금지	"정답을 먼저 말하지 마"
3	형식	"항상 질문으로 끝내고 스스로 체크해"

[역할 체크: 질문으로 응답함]

AI가 규칙을 지켰는지 한눈에 확인하는 자기 체크 태그

따라 하기 · 5단계

1 개념 정하기 › 2 역할 고르기 › 3 프롬프트 쓰기 › 4 오개념 던지기 › 5 한 문장 정리

별도 도구 없이, 평소 쓰는 AI에 프롬프트만 추가하면 끝

책임 있는 AI 활용

- ✔ AI가 제시한 정의를 통계 교재와 대조해 검증
- ✔ 개인정보 없이 개념 질문만 입력
- ✔ 참고: 소효정 외(2026), 『교육정보미디어연구』 32(3)
- ● 한계: 1개 개념 1회 시도, 추가 검증 필요